

지상파 TV 방송프로그램에 나타난 식품영양정보의 질적 분석(2002-2003년) - 뉴스, 건강정보 프로그램, 드라마

문현경[†] · 장영주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 전공

Qualitative Analysis of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s offered in Television Programs(year 2002-2003) - Newscastings, Health Information Programs and Dramas

Moon, Hyun-Kyung[†] · Jang, Young-Ju
Dept. of Food Science & Nutrition, Dankook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aimed to perform the qualitative analysis of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s offered in TV program by monitoring newscastings, health-related programs giving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dramas for family,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and information programs for elderly in major TV broadcasting station(KBS, MBC, SBS, EBS). In this study, statistical analysis were done for numbers of information items related to health or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s. Duration of program the main, subject, sources, evaluation criteria of the contents. Results of qualitative monitoring for TV program are as follows. For health-related informations major propotions of subjects for the newscastings were about diseases. Those for health information programs were about foods. Those for children-education programs were about groceries. Those for seniors' information programs were about eating habits. The analysis of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sources for most of programs were interviews with specialist and normal person, and on-the-spot-investigations. For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s those were evaluated as inappropriate, the propotion of news was increased to 72.2% in 2003 from 49.3% in 2002. For health information programs, it was increased to 67.7% in 2003 from 54.0% in 2002. But, in drama the propotion of inappropriate scenes were decreased to 16.2% in 2003 from 63.2% in 2002. In children-education programs, it was 40.0%. In seniors' information programs, it was 17.9% in 2002. The propotion of cases that the quantity of foods is inappropriate in the food scene of serial drama, decreased to 15.8% in 2003 from 28.6% in 2002. The rate of drinking scenes increased to 11.5% from 10.7%. The rate of smoking scenes decreased to 0.2% from 1.6% due to the broadcasting self-regulation of smoking scenes in dramas. In the newscastings and information programs, reasons of being evaluated as inappropriate was that they didn't have any practical suggestions and proper intakes. There were also insufficient explanation for technical terminology, different comparison standard of nutritive value, and exaggeration for physiological effect of food. The drama contained a lot of unnecessary scenes of alcohol drinking, coffee drinking, midnight meal, and had more quantity of foods than the quantity needed for persons to the scene.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rate of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were high, but the rate of information which was evaluate as appropriate was not sufficient. There are need to improve contents of information and to monitor the contents for consumer.

Key Words : television monitoring,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This study was partially accomp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s Health Promotion Fund(year 2002-2003) as the program of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접수일 : 2004년 12월 6일, 채택일 : 2005년 1월 12일

[†]Corresponding author : Moon, Hyun-Kyung,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College of natural science, Dankook University, 147 hannam ro, hannam dong, youngsan ku, Seoul 140-714, Korea
Tel : 02)709-2190, Fax : 02)792-7960, E-mail : moonhk52@dankook.ac.kr

서론

대중매체 중에서 특히 TV의 정보전달 효과는 영상과 음향을 함께 전달하고,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TV와 공존하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방송되는 정보를 그대로 자신의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게 한다(1). 각종 대중매체는 다양한 형태로 건강과 영양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 태도 및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2). 따라서 건강관련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한 건강정보가 범람하고 있고, 이들 정보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3-4). 방송매체 중에서도 지상파 TV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식생활관련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건강관련 영양교육의 전파력은 크지만 과장된 식품 광고, 왜곡된 영양지식, 무절제한 정보의 범람 등 정확성과 전문성에서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5). 식생활관련 TV 프로그램 담당 PD들은 식생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장기적 목적은 이해하고 있었으나 식품영양 분야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6). 이런 제작시스템의 비전문성은 부정확한 보도의 큰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고(7), 제작시스템의 전문성 부족은 주로 TV 방송국에 전문기자 또는 전문제작자 제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6).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식품영양관련 정보가 드라마나 대담 프로그램, 코미디물 등의 오락 프로그램에 서까지 다루어지고 있어(8) 이처럼 여과없이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9).

방송매체의 건강에 대한 정보 중 식품영양관련 정보는 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건강관련 지식을 실생활에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전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긍정적인 면으로만 볼 때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10). 그러나, 이러한 잇점을 잘 활용하지 못할 때 국민건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또한 심각하다(11).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는 그릇된 영양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또 현혹되기 쉬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함으로써 영양의 중요성을 소홀히 다룰 수 있다(5). 특히, 식생활을 비롯한 건강관련 정보들은 보도형식이나 토크쇼, 교양 프로그램, 생활정보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

램, 드라마 등에서 단시간에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성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에 식품영양정보를 포함한 건강 관련 정보는 시청률을 의식한 오락적 취지나 단순한 사실전달의 차원보다 더 신중히 깊이 전문적으로 방송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12). 건강관련 TV 프로그램이 질병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시청자의 요구가 건강증진 및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시청취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건강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연구(13), 정책적으로 TV방송을 통한 건강정보 보급의 현황과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14), 여성단체나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다이어트 광고나 음주, 흡연 등의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과 식품영양정보 모니터링 결과(15-17)들은 TV 프로그램이 전달하는 건전한 건강정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지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18)과 방송사 자체의 프로그램 심의규정과 시청자 위원회 운영, 음부스맨 제도 실시, 모니터링 제도 운영 등 방송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방송사 자체의 노력과 시민단체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들은 심의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나 방송 기술적인 면, 내용 구성면에서의 제한적인 지적에 그치는 한계가 있어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식품영양정보의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실생활에 대안을 주는 데는 영양전문인에 의한 전문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전문가, 언론관계자, 행정담당기관, 국민들 모두 건강에 유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 전달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기초자료나 도구개발, 평가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은 미진한 편이며, 연계된 연구 또한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날로 증가되고 있는 건강관련 보도나 프로그램의 정보에 대한 통제는 무방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TV 프로그램과 관련한 영양교육 및 영양정보측면의 다양한 연구(19)와 대중매체 전반에 나타난 식품영양정보들을 모니터링하여 그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IFIC(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의 활동보고서(20-21) 등과 media guide 마련(22) 등과 같은 건강한 정보환경을 만들기 위한 식품영양정보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론매체 중에서도 국민의 생활과 정보습득 경로로써 영향력이 큰 방송매체 중 가장 공익성이 요구되고, 남녀노소 쉽게 시청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지상파 TV의 국민의 건강관련 인식에 영향이 있는 프로그램인 뉴스, 건강정보,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노인정보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드라마를 대상으로 TV 방송 프로그램에 나타난 식품영양정보의 현황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조사하여 식품영양정보의 내용 평가, 긍정적인 면과 부적절한 면에 대해 식품영양정보의 질적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식품영양정보 언론모니터링 사업(23)의 일환으로 1차 조사기간은 2002년 4월 29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였으며, 2차 조사기간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로 연도별로 각 6개월간 모니터링하였다.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중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프로그램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에 나타난 건강관련 식품영양정보 또는 기사 및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관련 장면의 질적 요인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뉴스프로그램은 지상파 방송 3사 저녁 메인 뉴스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며, 어린이 교육프로그램과 노인정보 프로그램, 드라마는 각 방송시간 비교를 위하여 동일한 장르가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건강정보 프로그램은 교양프로그램 중에서 각 방송시간 비교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모니터링 전문 교육을 마친 식품영양학 전공 모니터원이 조사 기간 중 담당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각 프로그램에 나타난 식품영양정보의 질적 항목을 조사하여 SPSS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및 평균을 분석하였다.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 중 건강과 식품영양정보 관련 기사를 주제, 취재원, 적절성 여부 평가, 부적절한 요인 등을 분류하여 평가하고, 드라마는 건강 식생활 관련 장면을 분석하여 식사 시간, 식사 장소, 음식의 종

류와 양의 적절성, 식생활 장면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적절성 여부 평가, 부적절한 요인 등을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질적 분석을 위한 평가 항목의 설정은 식품영양정보 언론모니터링 사업(23)의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보완하였다.

1) 뉴스, 건강정보 프로그램,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 ① 주제 : 1차 건강정보, 식품영양관련 정보로 분류하고, 2차 질환, 식품, 영양소, 보건환경(환경, 기후, 위생 등), 건강위해요소(흡연, 마약 등), 생활습관(수면, 운동 등), 의료정보(기술, 제도 등), 음식,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 ② 취재원 : 연구보고서, 인터뷰(전문가, 일반인), 현장탐방, 문헌고찰, 기타로 분류하였다.
- ③ 적절성 평가 : 모니터링한 각 프로그램 중에서 식품영양정보 기사의 방송내용을 적절성과 부적절성의 평가를 각각의 평가 항목(Table 1)에 따라 하고, 개선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 드라마

각 분석항목(식사형태, 끼니, 음식의 종류)에 따라 1편당 등장하는 횟수를 기록하였으며, 세부 분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식사형태 : 가정식, 외식, 기타식생활 장면, 음주, 흡연, 커피
- ② 끼니 : 아침, 점심, 저녁, 간식, 특별식(명절식, 행사식), 기타
- ③ 음식의 종류 : 한식, 양식, 패스트푸드, 중식, 일식, 기타
- ④ 음식의 양 : 많다, 적당하다, 적다
- ⑤ 연령대 : 영유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 ⑥ 음주시 술의 종류 : 소주, 맥주, 양주, 전통주, 기타
- ⑦ 식생활관련 장면의 장소 : 가정, 식당이나 주점(포장마차), 커피숍, 사무실 등 실내, 야외(공원, 거리), 기타
- ⑧ 식생활관련 장면의 원인 : 즐거움, 기쁨, 축하, 슬픔, 피로움, 위로, 화남, 일상적인 대화, 건강을 목적으로(보신용), 스트레스 해소, 일상적인 식사 및 간식, 행사, 의례, 식사요법(이유식, 입심, 질환 등), 반주, 먹는 것과 관련 한 일(식당), 생각, 여유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습관성, 기다림, 선물, 기

타 등으로 분석하였다.

⑨ 적절성 평가 : 모니터한 각 프로그램 중에서 식 생활관련 장면의 방송내용을 적절성과 부적절성

의 평가를 각각의 평가 항목(Table 2)에 따라하고, 개선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Evaluation factors of appropriateness and inappropriateness for food and nutrition-related informations

Classification	Factor
Appropriatenes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Offering information referred with experiment or field research report 2. Suggesting for ideal dieting guideline 3. Serving instructive information on health management 4. Offering the science-based information 5. Offering information ; that the audience can easily understand 6. Offering the correct and reliable information by suggesting opinion of professionals 7. Providing the update health information 8. Providing the useful information for a consumers choice 9. Others
Inappropriatenes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here is no ideal dieting guideline 2. Insufficient explanation of terminology 3. Insufficient scientific base of subject 4. Exaggerated contents 5. Comparison with wrong standard 6. Ambiguous explanation of contents of the subject 7. No suggestion of the recommended intake 8. No explanation of advantages & disadvantages 9. No suitable for Korean 10. Insufficient explanation for research report 11. No mention about the excess or lower intakes and suggestions 12. Different description with subject 13. No opinion of the professionals 14. Unsanitary scene 15. No information on diet therapy 16. Delivering wrong health information 17. Implication of advertisement for certain product 18. Others

Table 2. Evaluation factors of appropriateness and inappropriateness scenes with dining in drama

Classification	Factor
Appropriatenes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roper food volume and numbers of dishes 2. Eating without smoking or drinking 3. Proper eating behavior and food culture 4. Nutritious meals with right food selection(seasonal food) 5. Providing the new dietary information 6 Others
Inappropriatenes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Violation of the law(street trade, etc.) 2. Unsanitary scene 3. Large volume of food 4. Generalizing of bad nutrition problem 5. Too many numbers of dishes 6. Wrong comparison, prejudice & recognition for food culture 7. Unnecessary scenes with meal(drinking, coffee, smoking) 8. Improper eating behavior(eating with TV watching, noise) 9. Others

3.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의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e) 10.0 for Window를 이용하여, 빈도 및 평균분석을 한 후 각 매체별, 월별, 주제별, 항목별 분포차이의 경향을 알아보았다. 2002년과 2003년 각 프로그램별, 각 항목별 빈도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χ^2 -test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식품영양정보 기사의 주제별 분석

프로그램별 건강과 식품영양정보 기사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각 프로그램별 주제의 연도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1$). 뉴스프로그램은 질환을 주제로 한 기사가 2002년도 30.0%에서 54.5%로 증가한 것은 건강관련 보도가 질환에 편중되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건강정보 프로그램은 건강과 관련하여 음식을 소개하는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소품으로만 활용 경우가 포함된 기타가 42.9%로 가장 높았으며, 식품 23.8%, 생활습관 교육 16.7%의 순이었다. 노인정보 프로그램은 생활습관 36.1%, 기타 20.3%, 음식 18.1%, 질환 16.5%의 순이었다. 뉴스프로그램에서 주제 중 기타로 분류된 기사가 많은 것은 건강관련 기사의 영역이 매우 다양해지고 확대되

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연구(24)에서는 식품영양정보 기사의 주제로 식품, 음식소개 24.7%, 음식과 요리 20.3%로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뉴스는 질병관련 정보, 건강정보 프로그램은 음식을 높게 다루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특히, 방송매체의 뉴스에서 신문과 다르게 질병을 다루는 비중이 높아 더욱 건강과 관련되는 정보의 영향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1999년 김 등의 식품영양정보 방송모니터링 연구(25-26)에서는 오락프로그램을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음식과 요리, 식품이 1위로 시청률을 의식한 흥미위주의 식품영양정보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하는 보도, 교양프로그램 위주로 선정하여 오락을 목적으로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것으로 생각된다.

2. 드라마의 식생활 장면의 주제 분석

Table 4~Table 12는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 장면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식사형태, 시간, 메뉴, 원인, 장소, 연령대, 성별 등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항목에서 각 프로그램별 연도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1$).

1) 식생활관련 장면 형태

Table 4는 2002년도와 2003년 모니터링한 드라마의 식생활관련 장면을 가정식, 외식, 음주, 흡연 등으로

Table 3. Distribution of the main subject of the foods and nutrition informations offered by the various kinds of program

Subject	Newscastings**1)		Health information**2)		Education for children	Information for elderly
	Year 2002	Year 2003	Year 2002	Year 2003	Year 2002	Year 2002
Disease	199(30.0)	577(54.5)	52(25.2)	101(22.3)	2(4.8)	22(16.5)
Food	148(22.3)	126(11.9)	33(16.0)	47(10.4)	10(23.8)	9(6.8)
Nutrient	10(1.5)	5(0.5)	8(3.9)	8(1.8)	0(0.0)	0(0.0)
Dish	18(2.7)	23(2.2)	73(35.4)	184(40.6)	3(7.1)	24(18.1)
Public health & environment	70(10.5)	58(5.5)	28(13.6)	11(2.4)	2(4.8)	1(0.8)
Factor of health hazzard	58(8.7)	56(5.3)	0(0.0)	9(2.0)	0(0.0)	0(0.0)
Life style	27(4.1)	18(1.7)	12(5.8)	37(8.2)	7(16.7)	48(36.1)
Medical information	116(17.5)	77(7.3)	0(0.0)	35(7.7)	0(0.0)	2(1.5)
Others	18(2.7)	118(11.2)	0(0.0)	21(4.6)	18(42.9)	27(20.3)
Total	664(100.0)	1,058(100.0)	206(100.0)	453(100.0)	42(100.0)	133(100.0)

1)** χ^2 -test; $\chi^2=192.47$, $p < 0.01$

2)** χ^2 -test; $\chi^2=68.26$, $p < 0.01$

Table 4. Distribution of the scenes of dining according to the place of dining and the dieting behaviors with dining

Meal form	Year 2002		Year 2003		Total	
	Number of scenes of dining** ¹⁾	Mean scene per day	Number of scenes of dining** ¹⁾	Mean scene per day	Number of scenes of dining	Mean scene per day
Home	437(44.2)	2.4	778(42.7)	2.0	1,215(43.2)	2.2
Dining out	200(20.2)	1.1	710(39.0)	1.8	910(32.4)	1.4
Drinking	111(11.2)	0.6	210(11.5)	0.5	321(11.4)	0.6
Smoking	20(2.0)	0.1	3(0.2)	0.1	23(0.8)	0.2
Coffee drinking	220(22.3)	1.2	122(6.7)	0.3	342(12.2)	0.6
Total	988(100.0)	1.1	1,823(100.0)	0.9	2,811(100.0)	1.0

unit : N(%)

¹⁾** χ^2 -test; $\chi^2=224.48$, $p<0.01$

분석한 결과이다. 2002년도 드라마에 나타난 건강 생활관련 장면수를 분석한 결과 총 657건 중 건강관련 장면수는 31건 4.7%, 식생활관련 장면수는 626건 95.3%였다.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 장면의 형태를 가정식, 외식, 기타식, 음주, 흡연, 커피 장면으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분석한 결과 총 1,093건 중 가정식이 464회, 42.5%, 외식과 커피 각 218건 19.9%, 음주 117건 10.7%, 기타 식생활 28건 2.6%, 흡연 17건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에는 가정식은 평균 2.4회, 외식은 평균 1.1회, 기타식은 평균 0.1회로 나타났다. 음주 장면은 평균 0.6회, 흡연 장면은 평균 0.1회, 커피를 마시는 장면은 평균 1.2회로 조사되었다. 2003년에는 총 1,823건 중 가정식이 778회, 42.7%, 외식 710건 39.0%, 음주 210건 11.5%, 커피 122건 6.7%, 흡연 3건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장면의 경우 KBS와 SBS가 2002년 12월 TV드라마 제작시 흡연 장면을 넣지 않겠다는 선언 이후였기 때문에 MBC만 3건 모니터 되었다. 이에 대한 MBC의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003년도 드라마 편당 각 식생활관련 장면의 장면수 평균은 가정식 2.0건, 외식 1.8건, 음주 0.5건, 커피 0.3건, 흡연 0.01건이었다. 이중 음주 장면은 2002년도의 0.6건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나, 주로 온가족이 시청하는 시간대의 1일 가족드라마들임을 감안할 때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송 제작시에 꼭 넣어야 하는 장면인 지에 대한 고려를 진지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장면의 경우 편당 장면수는 감소하였으나, 식생활 장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도 10.7%에서 11.5%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흡연 장면을 넣지 않겠다는 KBS, SBS의 드라마들이 음주장면으로 대체한 결과로 추측되며, 특히 SBS의 경우가 다른 방송사의 드라마보다 음주장면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02년의

본 연구결과인 방송 1회당 음주장면 평균 0.6회, 흡연 장면 평균 0.1회보다 TV에서의 흡연, 음주장면 등을 분석한 연구(27)의 흡연장면은 0.4회, 음주장면은 1.3회보다 낮게 나타났고, 2003년에는 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상 프로그램이 가족시청 드라마로 한정된 때문으로 생각된다.

2) 식생활 장면의 끼니 분석

Table 5는 2002년과 2003년 모니터한 드라마의 식생활관련 장면의 끼니형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2002년 드라마에 나타난 식사시기 및 끼니 분석 결과 총 752건 중 간식이 239건, 31.8%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48건 19.6%, 저녁 135건 18.0%, 점심 117건 15.6%, 아침 96건, 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 장면의 식사시기 및 끼니 분석 결과 총 1,778건 중 기타가 30.0%로 가장 높았으며, 저녁 23.3%, 점심 17.8%, 간식 13.4%, 아침 11.4%, 특별식 4.2%의 순이었다. 특별식의 경우는 생일상 등 행사식이나 명절식 등이, 기타의 경우는 주로 물을 포함한 음료를 마시는 장면이나 준비하는 장면이 많았다.

Table 5. Changes in meal time of the dining scenes in drama unit : N(%)

Meal time** ¹⁾	Year 2002	Year 2003	Total
Breakfast	96(12.8)	202(11.4)	298(11.8)
Lunch	117(15.6)	316(17.8)	433(17.1)
Supper	135(18.0)	414(23.3)	549(21.7)
Snack	239(31.8)	238(13.4)	477(18.9)
Special meal	17(2.3)	75(4.2)	92(3.2)
Other	148(19.6)	533(30.0)	681(26.9)
Total	752(100.0)	1,778(100.0)	2,811(100.0)

¹⁾** χ^2 -test; $\chi^2=130.57$, $p<0.01$

3) 식생활 장면의 연령대 분석

Table 6은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관련 장면에 등장한 인물들의 연령대를 분석한 것이다. 2002년에는 20대가 70.1%로, 2003년에는 30대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도 30대, 20대, 50대 이상, 40대, 10대 이하의 순이었다. 2002년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관련 장면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전체 895건 중 20대 627회 70.06%, 30대 483회 53.97%, 50대 414회 46.26%, 60대 233회 26.03%, 40대 214회 23.91%, 70대 61회 6.82%, 10대 23회 2.57%, 90대 1회 0.1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관련 장면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전체 1,802건 중 30대 1014회 56.3%, 50대 726회 40.3%, 20대 682회 37.8%, 60대 241회 13.4%, 40대 129회 7.2%, 10대 이하 112회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는 KBS는 주로 30대, MBC는 20대와 50대, SBS는 50대가 식생활 장면에 가장 많이 등장하여, 식생활정보 모니터링이나 방송제작시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식생활이 올바르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로 가정에서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30, 50대의 식생활 장면을 다루는 특성을 살려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식습관과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간접 교육효과를 기대해 볼만 하다 하겠다.

4) 식생활 장면의 메뉴 분석

Table 7은 모니터한 드라마의 식생활관련 장면의 메뉴형태를 분석한 것이다. 2002년에는 한식이 가장 많았으며, 2003년에는 음료 등 간단한 식생활을 방송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02년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 관련 장면의 메뉴를 한식, 양식, 패스트푸드, 중식, 일식, 기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총 614건

Table 6. Changes in age of the players in dining scenes in drama

Age**1)	unit : N(%)		
	Year 2002	Year 2003	Total
-10 years	23(2.6)	112(6.2)	135(5.0)
11-20 years	627(70.1)	682(37.8)	1,309(48.5)
21-30 years	783(54.0)	1,014(56.3)	1,497(55.5)
31-40 years	214(23.9)	129(7.2)	343(12.7)
41-50 years	414(46.3)	726(30.0)	1,140(42.3)
51 years -	295(33.0)	241(13.4)	536(42.3)
Total	895(100.0)	1,802(100.0)	2,697(100.0)

1)** χ^2 -test; $\chi^2=147.08$, $p<0.01$

Table 7. Changes of menu shown in the drama scenes for two years

Menu form**1)	unit : N(%)		
	Year 2002	Year 2003	Total
Korean style	277(45.1)	422(28.3)	699(67.9)
Western style	40(6.5)	22(5.3)	62(6.0)
Fast food	23(3.8)	10(2.4)	33(3.2)
Chinese style	16(2.6)	5(1.2)	21(2.0)
Japanese style	6(1.0)	8(1.9)	14(1.4)
Others(drink, Chinese medicine, etc.)	252(41.0)	242(58.1)	494(48.0)
Total	614(100.0)	416(100.0)	1,030(100.0)

1)** χ^2 -test; $\chi^2=40.06$, $p<0.01$

중 한식 277회 45.11%, 기타(음료, 과일 등) 252회 41.04%, 양식 40회 6.51%, 패스트푸드 23회 3.75%, 중식 16회 2.61%, 일식 6회 0.98%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관련 장면의 메뉴를 한식, 양식, 패스트푸드, 중식, 일식, 기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총 1,491건 중 음료가 918회 61.6%로 가장 많았으며, 한식 422회 28.3%, 양식 66회 4.4%, 패스트푸드 34회 2.3%, 중식 18회 1.2%, 일식 24회 1.6%, 중식 18회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에 비해 2003년에 음료관련 식생활 장면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제작비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가족 일일드라마에서조차 한식 위주의 가족식사를 의미하는 일은 자제되었으면 한다.

5) 음주 장면의 술의 종류 분석

Table 8은 드라마에 나타난 음주장면의 술의 종류를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소주가 31.2%로 가장 음주 장면에 많이 등장하는 술로 나타났다. 2002년 드라마의 음주장면에서 마시는 술의 종류를 소주, 맥주, 양주, 전통주, 기타로 분석한 결과 총 46건 중 소주 23회 50.0%가 가장 많았으며, 맥주 10회 21.7%,

Table 8. Changes in kinds of alcohol drinker in the scenes of drama

Kinds of alcohol**1)	unit : N(%)		
	Year 2002	Year 2003	Total
Soju	23(50.0)	46(26.3)	69(31.2)
Beer	10(21.7)	33(18.9)	43(19.5)
Western alcohols	9(19.6)	40(22.9)	49(22.2)
Traditional alcohols	1(2.2)	8(4.6)	9(4.1)
Other	3(6.5)	48(27.4)	51(23.1)
Total	46(100.0)	175(100.0)	221(100.0)

1)** χ^2 -test; $\chi^2=14.31$, $p<0.01$

양주 9회 19.6%, 기타 3회 6.5%, 전통주 1회 2.2%로 나타났다. 2003년 드라마의 음주장면에서 마시는 술의 종류를 소주, 맥주, 양주, 전통주, 기타로 분석한 결과 총 175건 중 기타(와인 등) 48건 27.4%로 가장 많았으며, 소주 26.3%, 양주 22.9%, 맥주 18.9%, 전통주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고급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식생활 장면의 성별 분석

Table 9는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관련 장면의 등장인물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이다. 2002년에는 총 232건 중 남녀 모두 나온 경우 92건 39.66%, 여자 89건 38.36%, 남자 51건 21.98%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드라마의 식생활관련 장면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성별을 분석한 모니터 결과 총 116건 중 남녀 모두 나온 경우 20건 17.2%, 여자 60건 51.7%, 남자 36건 31.0%로 나타났다. 주로 식생활 장면에는 여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식생활 장면의 음식의 양 평가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 장면의 음식 또는 식품의 양과 가짓수가 적당한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일상음식의 경우 밥, 국이나 찌개, 김치 1~2가지, 반찬 2가지를 기준으로, 양은 한국영양학회의 1인 1회 섭취분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연도별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적당하다'의 비율이 2002년 71.4%에서 2003년 84.2%로 증가되어 드라마에서의 식생활 장면이 일일가족드라마에서는 다른 장르의 드라마보다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2002년에는 총 578건 중 '적당하다'가 413건 71.4%로 가장 많았으며, '많다'가 145건 25.1%, '적다'가 20건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다'의 경우에는 주로 음주장면의 안주의 양이 주로 해당되었다. 2003년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 장면의 음식 또는 식품의 양과 가짓수가 적당한지를 분석

Table 10. Changes in adequacy of the volume and numbers of dishes in dining scenes of drama

Volume of food**1)	unit : N(%)		
	Year 2002	Year 2003	Total
Inadequate	145(25.1)	240(14.9)	385(17.6)
Adequate	413(71.4)	1,353(84.2)	1766(80.8)
Too much	20(3.5)	14(0.9)	34(1.6)
Total	578(100.0)	1,607(100.0)	2,185(100.0)

**1) x^2 -test; $x^2=14.31$, $p<0.01$

한 결과 총 1,607건 중 '적당하다'가 1353건 84.2%로 가장 많았으며, '적다'가 240건 14.9%, '많다'가 14건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다'의 경우에는 주로 음주장면의 안주의 양이 많이 해당되었다.

8) 식생활 장면의 장소

2002년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관련 장면의 장소를 분석한 결과 총 718건 중 가정이 545회 75.9%, 식당 82회 11.4%, 사무실 59회 8.2%, 거리, 공원 등 야외 19회 2.7%, 기타 13회 1.8%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1). 드라마에 나타난 음주장면의 장소를 분석한 결과 총 44건 중 주점이 17회 38.6%, 포장마차 15회 34.1%, 가정 5회 11.4%, 기타 4회 9.1%, 거리, 공원 등 야외 3회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의 식생활 장면에서 나타난 커피 마시는 장소를 분석한 결과 총 218건 중 커피숍 171회 78.4%, 가정 45회 20.6%, 사무실 등 실내 2회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관련 장면의 장소를 분석한 결과 총 1,641건 중 가정이 776회 47.3%, 식당 503회 30.7%, 실내, 사무실 121회 7.4%, 거리 29회 1.8%, 공원 등 야외 45회 2.9%, 기타 163회 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에 나타난 음주장면의 장소를 분석한 결과 총 193건 중 주점이 46회 24.0%, 가정 47회 24.5%, 포장마차 등 거리 22회 11.5%, 공원 등 야외 6회 3.1%, 기타 6회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에 비해 가정에서의 음주장면 횟수가 11.4%에서 2003년 24.5%로 증가한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며, 이의 시정이 요구된다.

9) 식생활 장면의 원인

Table 12는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 장면의 원인을 분석한 것이다. 식생활 장면은 식품, 음식이 등장하는 모든 장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2002년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 장면의 음주를 포함한 식생활

Table 9. Changes in gender of players in the dining scenes of drama

Sex**1)	unit : N(%)		
	Year 2002	Year 2003	Total
Male	51(22.0)	36(31.0)	87(25.0)
Female	89(38.4)	60(51.7)	149(42.8)
Male, female	92(40.0)	20(17.2)	112(32.2)
Total	232(100.0)	116(100.0)	348(100.0)

**1) x^2 -test; $x^2=40.06$, $p<0.01$

Table 11. Changes in the places of dining in drama

unit : N(%)

Place	Home** ¹⁾		Dining out** ²⁾		Drinking** ³⁾		Total** ⁴⁾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House	201 (97.1)	696 (91.3)	2 (1.5)	33 (4.8)	5 (11.4)	47 (24.5)	208 (54.3)	776 (47.3)
Restaurant	1 (0.5)	26 (3.4)	115 (87.0)	431 (62.8)	17 (38.6)	46 (24.0)	133 (34.7)	503 (30.7)
Indoor	0 (0.0)	17 (2.2)	9 (6.8)	98 (14.3)	0 (0.0)	6 (3.1)	9 (2.4)	121 (7.4)
Outdoor	1 (0.5)	0 (0.0)	4 (3.0)	39 (5.7)	3 (6.8)	6 (3.1)	8 (2.1)	45 (2.7)
Street	1 (0.5)	0 (0.0)	0 (0.0)	7 (1.0)	15 (34.1)	22 (11.5)	16 (4.2)	29 (1.8)
Other	3 (1.4)	23 (2.7)	2 (1.5)	78 (1.4)	4 (9.1)	66 (34.4)	9 (2.4)	163 (10.2)
Total	207 (100.0)	762 (100.0)	132 (100.0)	686 (100.0)	44 (100.0)	193 (100.0)	383 (100.0)	1641 (100.0)

¹⁾** χ^2 -test; $\chi^2=19.07$, $p<0.01$ ²⁾** χ^2 -test; $\chi^2=24.30$, $p<0.01$ ³⁾** χ^2 -test; $\chi^2=27.84$, $p<0.01$ ⁴⁾** χ^2 -test; $\chi^2=46.55$, $p<0.01$

장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총 996건 중 일상적인 식사 및 간식으로가 419회 42.1%, 일상적인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297회 29.8%, 먹는 것과 관련한 일(식당 등) 113회 11.4%, 슬픔, 괴로움, 위로를 목적으로 30회 3.0%, 즐거움, 기쁨, 축하를 위하여 25회 2.5%, 건강을 목적으로 20회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 장면의 음주를 포함한 식생활 장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총 1,600건 중 일상적인 식사 및 간식으로가 599회 37.4%, 일상적인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333회 20.8%, 슬픔, 괴로움, 위로를 목적으로 131회 8.2%, 즐거움, 기쁨, 축하를 위하여 114회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의 경우는 슬픔이 43.2%나 차지하여 슬플 경우 음주가 당연시되는 오해를 시청자들에게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습관적으로 설정되는 음주장면이 아닌 지에 대한 방송제작진들의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

TV에서의 흡연, 음주장면 등을 분석한 연구(27)의 음주장면의 원인으로 심리묘사와 침묵도모가 가장 높았으며, 친목도모의 경우 39.4%로, 술을 권하는 장면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음주장면 시청경험이 많을수록, 고음주군일수록 TV속의 음주장면으로 음주욕구가 크다는 결과는 주목할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슬플 때 43.2%, 대화 13.1%, 축하 11.5%, 화남 9.8%의 순으로 나타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3. 식품영양정보 기사의 취재원 분석

연도별로 프로그램별로 건강과 식품영양정보 기사의 취재원을 분석한 결과는 인터뷰 형식이 가장 많았다.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성격상 취재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3은 연도별로 프로그램별 건강관련 식품영양정보 기사의 취재원을 분석한 것이다. 각 프로그램 장르별 연도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뉴스나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취재원은 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이기에 매우 중요하다(28-29). 보통의 기사에서 두가지 이상의 취재원을 사용하므로 인터뷰와 현장탐방 형식이 많았다. 인터뷰에는 전문가 인터뷰와 일반인 인터뷰를 한가지만 하거나, 둘다하기도 하지만 뉴스프로그램의 건강관련 식품영양정보 기사의 평균 방송시간이 60~90초임을 감안하면, 공정한 보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려면 해당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도록 기사 배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형식이 가장 높았으며, 현장탐방, 연구보고서, 기타(자료 화면 등), 문헌인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프로그램의 건강관련 기사의 60~90초 내외의 짧은 보도시간에 인터뷰 형식의 정보전달은 단편적인 지식전달에 치우칠 우려가 크며, 전문가의 인터뷰라

Table 12. Changes of occasions and emotions associated with dining scenes in drama

Year Place	Home** ¹⁾		Dining out** ²⁾		Drinking** ³⁾		Total** ⁴⁾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Congratulation	9 (3.9)	40 (5.3)	1 (0.7)	53 (7.9)	0 (0.0)	21 (11.5)	10 (2.6)	114 (7.1)
Sad	1 (0.4)	14 (1.9)	0 (0.0)	38 (5.7)	1 (16.7)	79 (43.2)	2 (0.5)	131 (8.2)
Angry	0 (0.0)	9 (1.2)	1 (0.7)	19 (2.8)	0 (0.0)	18 (9.8)	1 (0.3)	46 (2.9)
Conversation	42 (18.3)	90 (12.0)	83 (54.2)	219 (32.7)	0 (0.0)	24 (13.1)	125 (32.2)	333 (20.8)
Health	17 (7.4)	40 (5.3)	1 (0.7)	5 (0.7)	0 (0.0)	1 (0.5)	18 (4.6)	46 (2.9)
Stress	1 (0.4)	6 (0.8)	1 (0.7)	8 (1.2)	0 (0.0)	11 (6.0)	2 (0.5)	25 (1.6)
Meal	133 (58.1)	409 (54.7)	38 (24.8)	187 (28.0)	0 (0.0)	3 (1.6)	171 (44.1)	599 (37.4)
Ceremony	3 (1.3)	15 (2.0)	6 (3.9)	12 (1.8)	0 (0.0)	4 (2.2)	9 (2.3)	31 (1.9)
Diet therapy	2 (0.9)	23 (3.1)	1 (0.7)	8 (1.2)	0 (0.0)	0 (0.0)	3 (0.8)	31 (1.9)
Drinking for meal	0 (0.0)	1 (0.1)	0 (0.0)	0 (0.0)	0 (0.0)	0 (0.0)	0 (0.0)	1 (0.1)
Job	8 (3.5)	5 (0.7)	15 (9.8)	10 (1.5)	5 (83.3)	2 (1.1)	28 (7.2)	17 (1.1)
Thinking	0 (0.0)	24 (3.2)	2 (1.3)	35 (5.2)	0 (0.0)	12 (6.6)	2 (0.5)	71 (4.4)
Habit	3 (1.3)	9 (1.2)	1 (0.7)	3 (0.4)	0 (0.0)	0 (0.0)	4 (1.0)	12 (0.7)
Consuming time	8 (3.5)	2 (0.3)	2 (1.3)	10 (1.5)	0 (0.0)	1 (0.5)	10 (2.5)	13 (0.8)
Waiting	0 (0.0)	1 (0.1)	1 (0.7)	0 (0.0)	0 (0.0)	0 (0.0)	1 (2.6)	1 (0.1)
Present	2 (0.8)	60 (8.0)	0 (0.0)	62 (9.3)	0 (0.0)	7 (3.8)	2 (0.5)	29 (8.1)

unit : N(%)

¹⁾** χ^2 -test; $\chi^2=67.18$, $p<0.01$ ²⁾** χ^2 -test; $\chi^2=91.76$, $p<0.01$ ³⁾** χ^2 -test; $\chi^2=110.40$, $p<0.01$ ⁴⁾** χ^2 -test; $\chi^2=148.01$, $p<0.01$

하더라도 해당 전문가를 잘 섭외하였는지, 충분히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만한 시간적 배려가 있었는지에 따라 왜곡, 과장될 수 있고, 건강정보는 다른 분야의 기사보다 단순한 지식이나 사실을 전달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할 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 뉴스에서의 정치, 경제분야 위주의 방송에 대한 방송학계나 모니터 단체들의 다양한 기사의 보도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방송사에서도 아침뉴스, 생활정보뉴스, 심야뉴스 등 다양화된 뉴스를 특성화하는 경향도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건강보도기사는 집중취재 형식의 기획기사 형식

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뉴스의 취재원은 반드시 기사와 함께 제공되어야 함은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에도 명시되어있을 만큼 보도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한다(28-29). 그러므로, 취재원으로 인해 생기는 정보전달의 폐해를 줄이려면 연구보고서의 경우에는 국내의 연구결과인지, 국외의 연구결과인지, 연구기관은 신뢰할만한 곳인지, 연구대상은 누구인지, 효과 뿐만이 아니라 부작용이나 실생활 적용에 무리는 없는지,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현장탐방의 경우에는 주제에 맞는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한 것인지, 자료화면인지에 대한 표현

Table 13. Changes of the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sources according to program

unit : N(%)

program style	Year	Research report	Site visit	Interview	Literature reference	Other	Total
Newscastings** ¹⁾	2002	168 (25.3)	547 (82.4)	559 (84.2)	40 (6.0)	11 (1.7)	664 (100.0)
	2003	86 (8.7)	381 (38.6)	759 (77.0)	7 (0.7)	70 (7.1)	986 (100.0)
Health information** ²⁾	2002	15 (6.8)	57 (25.8)	154 (69.7)	9 (4.1)	0 (0.0)	221 (100.0)
	2003	20 (4.7)	190 (44.2)	223 (51.9)	60 (14.0)	28 (6.5)	430 (100.0)
Education for children	2002	0 (0.0)	0 (0.0)	0 (0.0)	0 (0.0)	42 (100.0)	42 (100.0)
Information for elderly	2002	0 (0.0)	27 (20.9)	121 (93.8)	0 (0.0)	0 (0.0)	129 (100.0)
Total per year** ³⁾	2002	183 (17.5)	631 (60.2)	834 (79.5)	49 (4.7)	46 (4.4)	1,049 (100.0)
	2003	106 (7.5)	571 (40.3)	982 (69.4)	67 (4.7)	98 (6.9)	1,416 (100.0)
Total		289 (7.7)	1,201 (48.7)	1,816 (73.7)	116 (4.7)	144 (5.8)	2,465 (100.0)

¹⁾** χ^2 -test; $\chi^2=152.49$, $p<0.01$ ²⁾** χ^2 -test; $\chi^2=49.55$, $p<0.01$ ³⁾** χ^2 -test; $\chi^2=55.23$, $p<0.01$

이 정확하여야 하며, 문헌을 인용할 때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문헌인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터뷰의 경우에도 공정성이 있게 일반인들의 의견을 취재하였는지, 주제에 맞는 전문인이 섭외되었는지, 전문인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인지 등에 대한 방송제작진들의 보도기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2002년도 뉴스프로그램별 건강관련기사의 취재원을 분석한 결과 총 664건 중 현장탐방 547건 82.4%, 인터뷰 559건 84.2%, 연구보고서 168건 25.3%, 문헌자료 40건 6.0%, 기타 11건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기사의 경우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를 인터뷰한 경우는 500건, 전문가만 인터뷰한 경우는 46건, 일반인만 인터뷰한 경우는 13건이었다. 2003년도 뉴스프로그램별 건강관련기사의 취재원을 분석한 결과이다. 방송 3사 모두 인터뷰 형식이 가장 많았으며, 현장탐방, 연구 보고서, 문헌인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탐방의 경우 MBC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취재원의 경우 기사 1건당 중복하여 2가지 이상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뉴스프로그램별 건강관련 기사의 취재원을 분석한 결과 총 986건 중 인터뷰 759

건 77.0%, 현장탐방 381건 38.6%, 연구보고서 86건 8.7%, 기타 70건 7.1%, 문헌자료인용 7건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자료사진이나 화면을 사용한 예가 많았다.

2002년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취재원을 분석한 결과 총 221건 중 인터뷰 154건 69.7%, 현장탐방 57건 25.8%, 연구보고서 15건 6.8%, 문헌고찰 4건 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154건의 경우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인터뷰한 경우는 82건, 전문가만 인터뷰한 경우는 59건, 일반인만 인터뷰한 경우는 13건이었다. 2003년도에는 전체적으로는 인터뷰 형식이 가장 많았으나, 다양한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문헌자료 인용이, 음식소개 프로그램인 '찾아라 맛있는 TV'는 현장탐방형식이 취재원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30건 중 인터뷰 223건 51.9%, 현장탐방 190건 44.2%, 문헌인용 28건 6.5%, 연구보고서 20건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건강에 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알기 쉽게 건강정보를 전달하여 시청자들의 신뢰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건강상식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질환별로 전문적인

진단이나 관리, 치료방법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건강 운동 등 생활습관이나 환경 관련 개선 프로그램,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요리전문 프로그램, 음식소개 전문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 제시나 출연 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건강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은 높으나, 주제에 맞지 않는 전문가 섭외나 잘못된 의견 제시는 그 파급 효과가 더 크므로, 뉴스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정보 프로그램의 건강관련 정보기사의 취재원을 분석한 결과 총 133건 중 기타 129건을 제외한 건수 중에서 인터뷰가 121건 91.0%가 가장 높았으며, 현장탐방 27건 20.3%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식품영양정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1) 뉴스 등 정보관련 프로그램

2002년, 2003년 뉴스와 건강정보 프로그램,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노인정보 프로그램의 식품영양정보 기사와 드라마의 식생활관련 장면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모니터 건수에 대한 연도별 적절성 평가결과는 Table 14와 같다. 2002년도에는 44.2%가 2003년에는 59.4%의 기사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프로그램 장르별 연도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1$).

2002년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연구(24)에서는 26.1%의 식품영양정보 기사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어 방송프로그램의 적절성 평가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뉴스프로그램이, 2002년에는 드라마에서 부적절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3년도에는 뉴스프로그램이, 2002년도에는 드라마에서 부적절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뉴스프로그램의 경우 2002년 49.3%에서 2003년 72.2%로 증가하였으며, 건강정보 프로그램 역시 54.0%에서 67.8%로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비율이 증가하였다.

프로그램별 적절성 평가요인 분석은 Table 15에 나

Table 14. Percentage of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s evaluated as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program

Program style	Year	Total of number (food & nutrition information)	Evaluation	
			appropriate	N(%)
News** ¹⁾	2002	276	appropriate	140(50.7)
			inappropriate	136(49.3)
	2003	1,065	appropriate	296(27.8)
			inappropriate	769(72.2)
Health information** ²⁾	2002	139	appropriate	64(46.0)
			inappropriate	75(54.0)
	2003	455	appropriate	147(32.2)
			inappropriate	308(67.8)
Education for children	2002	35	appropriate	21(60.0)
			inappropriate	14(40.0)
Information for elderly	2002	134	appropriate	110(82.1)
			inappropriate	24(17.9)
Drama** ³⁾	2002	1,030	appropriate	379(36.8)
			inappropriate	651(63.2)
	2003	1,885	appropriate	1,580(83.8)
			inappropriate	305(16.2)
Total** ⁴⁾	2002	1,614	appropriate	714(44.2)
			inappropriate	900(55.8)
	2003	3,405	appropriate	2,023(59.4)
			inappropriate	1,382(40.6)

¹⁾** χ^2 -test; $\chi^2=52.53$, $p<0.01$

²⁾** χ^2 -test; $\chi^2=8.77$, $p<0.01$

³⁾** χ^2 -test; $\chi^2=668.23$, $p<0.01$

⁴⁾** χ^2 -test; $\chi^2=101.69$, $p<0.01$

타내었다. 뉴스 중 적절한 평가를 받은 기사 중 2002년도에는 소비자 선택시 유익한 정보를 준다가, 2003년도에는 알기쉽게 정보를 전달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프로그램 장르별 연도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1$).

뉴스프로그램의 건강관련 정보기사 중 적절한 평가를 받은 기사들의 요인을 살펴보면 알기쉽게 정보를 전달하였다가 높았으며, 실험 또는 현장조사 보도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다고 높게 나타났다. 이는 뉴스의 기능을 대변해주는 결과로 주로 취재원을 인터뷰한 현장탐방을 이용하는 결과와 연계된다고 볼 수 있겠다. 건강정보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여 정확하고 신뢰있는 정보를 전달하였다'가 가장 높았으며, '건강관리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였다'와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하였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TV프로그램에서 전달되어지는 건강관련 식품영양정보가 알기 쉽게 전달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뉴스는 정확한 건강정보의 신속한 전달 기능을, 건강정보 프로그램은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를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전달하여 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영양교육 매체로서 TV의 긍정적인 활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뉴스는 2002년에는 '소비자 선택기준 제공(29.0%)', '건강관리에 유익한 정보제공(21.0%)'이, 2003년에는 '쉽게 정보를 전달하였다(39.2%)'가, 건강정보 프로그램은 2002년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54.2%)', 2003년 '전문가의 의견 제시(34.4%)'가,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은 '알기쉽게 정보를 전달하였다(25.7%)'가, 노인정보 프로그램은 '건강관리에 유익한 정보를 주었다(15.7%)'가 적절한 평가를 높게 받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2002년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연구(24)와 1999년 식품영양정보 방송모니터링 연구(25-26)에서도 적절한 평가를 받은 항목으로 1위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로 언론매체의 식품영양정보의 기능이 주로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적절성 평가율은 1997년 이전의 대한영양사협회 모니터 활동보고서(30)에서 4.5%, 1999년 식품영양정보 방송모니터링 연구(25-26)에서 29.5%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Table 15. Evaluation of appropriateness factors by program and year

Appropriateness evaluation factors	unit : N(%)					
	News**1)		Health information**2)		Education for children	Information for elderly
	2002	2003	2002	2003	2002	2002
1	14(5.1)	308(33.2)	28(0.0)	10(3.5)	4(11.4)	0(0.0)
2	3(1.1)	101(10.9)	25(54.2)	43(15.1)	5(14.3)	2(1.5)
3	58(21.0)	67(7.2)	4(18.0)	77(27.0)	3(8.6)	21(15.7)
4	13(4.7)	8(0.9)	26(2.9)	8(2.8)	3(8.6)	2(1.5)
5	9(3.3)	364(39.2)	28(18.7)	64(22.5)	9(25.7)	2(1.5)
6	27(9.8)	45(4.8)	2(20.1)	98(34.4)	0(0.0)	16(12.0)
7	2(0.7)	49(5.3)	0(0.0)	31(10.9)	0(0.0)	0(0.0)
8	80(29.0)	92(9.9)	2(1.4)	25(8.8)	0(0.0)	4(3.0)
9	0(0.0)	52(5.6)	2(1.4)	35(12.3)	0(0.0)	0(0.0)
Total	276(100.0)	929(100.0)	139(100.0)	285(100.0)	35(100.0)	134(100.0)

¹⁾** χ^2 -test; $\chi^2=376.26$, $p < 0.01$

²⁾** χ^2 -test; $\chi^2=179.24$, $p < 0.01$

1. Offering information referred with experiment or field research report
2. Suggesting for ideal dieting guideline
3. Serving instructive information on health management
4. Offering the science-based information
5. Offering information ; that the audience can easily understand
6. Offering the correct and reliable information by suggesting opinion of professionals
7. Providing the update health information
8. Providing the useful information for a consumers choice
9. Others

2) 드라마

드라마의 식생활관련 장면의 모니터 결과 적절성 평가를 받은 건강관련 식품영양정보 기사에서 음식의 적당한 양과 가짓수가 가장 높았다(Table 16). 각 프로그램 장르별 연도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2002년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관련 장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항목별 분석 결과 적당한 음식의 양과 가짓수 39건 3.8%로 가장 높았으며, 영양적인 메뉴 및 식품 선정, 올바른 식사행동 및 식문화, 불필요한 식생활관련 개선(흡연, 음주), 새로운 식생활관련 정보 전달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관련 장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항목별 분석 결과 적당한 음식의 양과 가짓수 270건 68.5%로 가장 높았으며, 영양적인 메뉴 및 식품 선정, 올바른 식사행동 및 식문화, 불필요한 식생활관련 개선(흡연, 음주), 새로운 식생활관련 정보 전달의 순으로 2002년도 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2002년도보다 드라마에서 적절성 평가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이는 일일가족 드라마의 다른 드라마 장르와의 차별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프로그램별 식품영양정보의 부적절성 평가

1) 뉴스 등 정보프로그램

뉴스의 건강관련 정보나 건강관련 프로그램은 알기 쉽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미치는 국민건강에의 영향은 매우 크고, 국민의 건강에 관심의 증대로 매년 다양한 형태의 건강관련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어, 이의 제작 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적절성 평가요인을 프로그램 특성별로 고려하여 개선점을 찾는 노력은

건강한 정보환경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부적절성 요인 평가 분석결과는 Table 17에 나타내었다. 각 프로그램 장르별 연도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2002년 뉴스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하다고 평가 항목을 분석한 결과 '실생활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소비자에게 선택기준에 대한 유의한 정보를 주었다'가 80건 28.99%, '건강관리에 유의한 정보를 전달하였다'가 58건 21.0%,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였다'가 27건 9.8%,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정보를 다각도로 전달하였다'가 13건 4.7%,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하였다'가 9건 3.26%, '실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가 3건 1.1%, '새로운 건강정보를 제공하였다'가 2건 0.7%의 순이었다. 뉴스프로그램 별로는 KBS '9시 뉴스'는 '건강관리에 유의한 정보를 전달하였다'가 12건 20.3%, MBC '뉴스데스크'와 SBS '8시 뉴스'는 '소비자 선택기준에 유의한 정보를 주었다'가 각각 44건 34.9%, 36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3년에는 뉴스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하다고 평가 항목을 분석한 결과 '실생활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가 286건 43.9%, '전문가 의견이 없다'가 122건 18.7%,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가 76건 11.7%, '내용이 과장되었다'가 81건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주요 항목을 분석한 결과 '특정 상품의 광고의 소지가 있다'가 86건 38.4%, '적정섭취량에 대한 제시가 없다'가 85건 37.9%, '과잉, 결핍, 주의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82건 36.6%, '주제의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가 65건 29.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식품영양관련 정보기

Table 16. Evaluation of appropriateness evaluation factors of drama's scenes by the year

Appropriateness evaluation factors**1)	unit : N(%)	
	Year 2002	Year 2003
1. Proper food volume and numbers of dishes	39(5.5)	270(68.5)
2. Eating without smoking or drinking	7(0.9)	12(3.0)
3. Proper eating behavior and food culture	12(1.7)	15(3.8)
4. Nutritious meals with right food selection(seasonal food)	31(4.4)	73(18.5)
5. Providing the new dietary information	5(0.7)	11(2.8)
6. Others	6(0.8)	22(6.0)
Total	707(100.0)	394(100.0)

** χ^2 -test; $\chi^2=31.66$, $p<0.01$

사의 부적절성에 대한 평가항목별 분석 결과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없다’가 20건 1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적정 섭취량에 대한 제시가 없다’, ‘식품영양관련 내용을 주제와 다르게 묘사하였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 건강정보 프로그램별로는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는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와 ‘과잉, 결핍 등 주의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TV클리닉 당신의 건강은’

은 비위생적인 장면이, ‘비타민’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가, ‘찾아라 맛있는 TV’에서는 ‘특정 상품의 광고로 오인되기 쉽다’가, ‘잘먹고 잘사는 밥’은 ‘주제의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가 부적절한 평가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실생활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적정섭취량에 대한 제시가 없다’, ‘식품영양건강 관련 내용을 주제와 다르게 묘사하였다’의 순으로, 노인정보 프로그램은 ‘주

Table 17. Evaluation of inappropriateness evaluation factors by program and year

Inappropriateness evaluation factors*	unit : N(%)					
	News**1)		Health information**2)		Education for children	Information for elderly
	2002	2003	2002	2003	2002	2002
1	61(22.1)	286(43.9)	1(0.7)	7(3.1)	4(11.4)	0(0.0)
2	14(5.1)	76(11.7)	17(12.2)	4(1.8)	1(2.9)	3(2.2)
3	11(4.0)	81(12.4)	3(2.2)	65(29.0)	0(0.0)	14(10.5)
4	14(5.1)	22(3.4)	2(1.4)	8(3.6)	1(2.9)	8(6.0)
5	14(5.1)	16(2.5)	6(4.3)	4(1.8)	2(5.7)	5(3.7)
6	8(2.9)	36(5.5)	3(2.2)	2(0.9)	0(0.0)	2(1.5)
7	12(4.4)	34(5.2)	9(6.5)	85(37.9)	3(8.6)	9(6.7)
8	1(0.4)	22(3.4)	20(14.4)	15(6.7)	0(0.0)	0(0.0)
9	3(1.1)	15(2.3)	1(0.7)	5(2.2)	0(0.0)	0(0.0)
10	12(4.4)	47(7.2)	0(0.0)	8(3.6)	0(0.0)	0(0.0)
11	10(3.6)	27(4.1)	1(0.7)	82(36.6)	0(0.0)	0(0.0)
12	10(3.6)	65(9.9)	8(5.8)	3(1.3)	3(8.6)	1(0.7)
13	3(1.1)	122(18.7)	0(0.0)	4(1.8)	1(2.9)	0(0.0)
14	2(0.0)	2(0.3)	1(0.7)	3(1.3)	1(2.9)	0(0.0)
15	0(0.0)	46(7.1)	2(1.4)	17(7.6)	0(0.0)	0(0.0)
16	0(0.0)	9(1.4)	4(2.9)	6(2.7)	0(0.0)	0(0.0)
17	2(0.7)	29(4.5)	0(0.0)	86(38.4)	0(0.0)	0(0.0)
18	0(0.0)	79(12.1)	0(0.0)	13(5.8)	0(0.0)	0(0.0)
Total	276(100.0)	651(100.0)	139(100.0)	224(100.0)	35(100.0)	134(100.0)

1)** χ^2 -test; $\chi^2=100.34$, $p<0.01$

2)** χ^2 -test; $\chi^2=209.99$, $p<0.01$

1. There is no ideal dieting guideline
2. Insufficient explanation of terminology
3. Insufficient scientific base of subject
4. Exaggerated contents
5. Comparison with wrong standard
6. Ambiguous explanation of contents of the subject
7. No suggestion of the recommended intake
8. No explanation of advantages & disadvantages
9. No suitable for Korean
10. Insufficient explanation for research report
11. No mention about the excess or lower intakes and suggestions
12. Different description with subject
13. No opinion of the professionals
14. Unsanitary scene
15. No information on diet therapy
16. Delivering wrong health information
17. Implication of advertisement for certain product
18. Others

제의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적정섭취량에 대한 제시가 없다', '내용이 실제 보다 과장되었다', '비교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다'의 순으로 부적절성 평가항목이 나타났다.

미디어 열린사람들의 음식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17)에 따르면 음식프로그램은 음식의 시각적인 면과 미각, 영양, 건강과의 상관관계, 음식문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맛에 치중되어 있고, 간접광고의 우려와 오락적인 분위기로 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외식지향주의와 서민음식에 대한 인식 저하 등을 부추기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음식소개 프로그램은 모두 부적절한 평가를 받았으며, 그 요인으로는 적정섭취량 제시나 장단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과 비슷하였다.

뉴스의 부적절한 요인으로는 2002년 2003년 모두 실생활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1999년 김 등의 연구(25-26)와 같이 1위로 나타났다. 1999년 손의 보고(29)에서 방송뉴스에 대안이 없고 결과위주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가장 이는 뉴스기사를 제작할 때에 적극 반영하여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먹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전문의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문 등의 신문 모니터링 연구(24)에서는 '간접적으로 특정제품을 광고한다'가 부적절한 평가요인으로 높아져 이전의 손의 연구(31)의 '근거자료 불충분'이 1위인 것과는 달리 신문에서 간접광고의 문제가 방송과는 달리 심각해짐을 알 수 있었다.

2) 드라마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건강관련 식품영양정보 기사에서는 2002년 비위생적인 장면, 2003년 불필요한 식사장면의 설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8). 특히 음주의 경우는 몇 방송사의 드라마상 흡연 장면의 폐지를 선언한 여파로 2003년에 증가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층이나 어린이,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해치는 장면들이므로 제작시 신중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프로그램 장르별 연도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드라마의 식생활 장면중 부적절한평가를 받은 요인으로는 2002년 비위생적인 장면과 음식의 양이 너무 많다가, 2003년에는 불필요한 식사 장면(음주, 커피, 흡연) 음식의 양이 너무 많다 음식의 가짓수가 너무 많다 전체적으로 2002년보다 2003년에 부적절한 장면 수는 감소하였으나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요인들은 비슷하였다. 2002년 드라마의 식생활관련 장면의 부적절성에 대한 평가항목별 분석 결과 비위생적인 장면이 52건 5.1%로 가장 높았으며, 음식의 양이 너무 많다, 불필요한 음주, 간식, 커피, 흡연 장면 설정, 잘못된 식문화 비교, 편견, 인식, 영양 불량적인 문제, 올바른지 않은 식사 행동(TV 시청, 큰소리), 음식의 가짓수가 너무 많다, 위법사항(길거리 영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9년 김등의 연구(25-26)에서 지나치게 오락적으로 묘사한 사례가 1위, 잘못된 정보전달이 2위였는데, 본 연구결과는 가족시청 드라마위주로 모니터링하였기 때문에 부적절성 평가요인에는 차이를 보였다.

Table 18. Evaluation of inappropriateness evaluation factors of dining scenes in drama by the year

Evaluation factors for inappropriateness**1)	unit : N(%)	
	Year 2002	Year 2003
1. Violation of the law(street trade, etc.)	4(0.5)	6(2.0)
2. Unsanitary scene	52(6.6)	3(1.0)
3. Large volume of food	37(4.7)	93(31.4)
4. Generalizing of bad nutrition' problem	9(1.1)	12(4.1)
5. Too many numbers of dishes	5(0.6)	73(24.7)
6. Wrong comparison, prejudice & recognition for food culture	21(2.7)	16(5.4)
7. Unnecessary scenes with meal(drinking, coffee, smoking)	34(4.3)	126(42.6)
8. Improper eating behavior(eating with TV watching, noise)	7(0.9)	24(8.1)
9. Others	4(0.5)	11(3.7)
Total	783(100.0)	296(100.0)

**1) x^2 -test; $x^2=144.38$, $p<0.01$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방송매체 중 지상파 TV 프로그램 중 정확한 보도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드라마 중 가족 드라마를 선정하여 건강관련 식품영양 정보의 질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2년도 4월 30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모니터링 요원 교육을 마친 식품영양학 전공 모니터원이 조사기간 중 담당 프로그램을 모니터하여 각 프로그램에 나타난 질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별로 건강관련 정보 기사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뉴스프로그램은 질환을 주제로 한 기사가 가장 높았으며, 2002년 30.0%에서 2003년 54.5%로 증가하였고($p<0.01$), 건강정보 프로그램은 2002년, 2003년 모두 음식을 소개하는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었으나 연도간 통계적인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1$).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식품, 노인정보 프로그램은 생활습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드라마에 나타난 식생활관련 장면을 가정식, 외식, 기타(음주, 흡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정식이 가장 많았고, 메뉴로는 한식이, 식사끼니로는 간식이,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대로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연도간 각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2002년 음주 117건 10.7%, 흡연 17건 1.6%, 2003년 음주 210건, 11.5%, 흡연 3건 0.2%로 주로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는 드라마들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생활관련 장면의 음식의 양에 대한 평가에서는 적당하다가 2002년 71.4%에서 2003년 84.2%로 높아진 것은 TV의 공익적 목적 실현의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식생활 장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일상적인 식사 및 간식으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음주의 경우 화가 났을 때나 슬플 때 습관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음주 장면의 설정에 대한 작가와 제작진의 의식 개혁이 요구된다하겠다. 식생활관련 장면의 장소를 분석한 결과 가정식이 많은 이유로 가정에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가정 내에서의 음주, 길거리 등 비위생적인 장소에서의 식생활 장면이 방송되고 있어, 이의 개선 또한 요구된다.
3. 뉴스와 건강정보 프로그램,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노인정보 프로그램의 프로그램별 건강관련 기사의 취재원을 분석한 결과 뉴스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터뷰와 현장탐방 형식을 병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노인정보 프로그램도 건강관련 기사에서는 인터뷰가 가장 많았고, 모두 연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4. 식품영양정보의 부적절한 평가율은 뉴스는 49.3%에서 72.2%로, 건강정보 프로그램은 54.0%에서 67.8%로 2002년보다 2003년에 높게 나타났으나($p<0.01$), 드라마는 63.2%에서 16.2%로 낮게 나타났으며($p<0.01$),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40.0%, 노인정보 프로그램 1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의 식생활 장면에서 음식의 양이 부적절한 경우는 28.6%에서 15.8%로 낮아졌으나, 음주 장면의 경우 10.7%에서 11.5%로 장면수가 증가하였음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흡연 장면의 경우 드라마상의 흡연장면 방송금지 선언의 여파로 KBS 1, SBS에서는 흡연장면이 2003년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는 1.6%에서 0.2%로 감소하였다.
5. TV 방송프로그램에 나타난 식품영양정보들 중 적절한 평가를 받은 요인들은 뉴스에서는 2002년에는 '소비자 선택시 유익한 정보를 준다'가, 2003년에는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는 2002년도에는 '실생활에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었다'가 2003년도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여 정확하고, 신뢰있는 정보를 전달하였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하였다'가 노인정보 프로그램에서는 '건강관리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였다'가 가장 적절하게 평가된 요인들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정보들의 긍정적인 요인들은 앞으로 프로그램 제작시나 모니터링시 적극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관련 전문단체나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에 자문을 하는데, 정보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하는데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되며, 연도별로 통계적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1$).
6. 뉴스 및 정보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 적절한 평가요인을 목적으로 제작되어 건강관련 전문인이나 해당 분야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많은 대중에게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더 나은 정보가 되려면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정보들의 요인을 분

석하여 개선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평가요인은 적정 섭취량이나 실생활에 활용 실천방안 등에 대한 제시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 부족, 영양가 비교기준이 다르거나, 식품 등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 과장된 경우가 많았다. 드라마의 경우 음주, 커피, 야식 등 불필요한 식사장면이 많이 나오거나 음식의 양이 사람수에 비해 많다는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통계적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p < 0.01$).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현대인의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대중매체에서도 영양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방송매체 중 지상파 TV 프로그램에서의 건강정보들은 쉽게 접할 수 있어 올바른 영양 및 건강생활을 위한 정보나 실천지침을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통로로서의 긍정적인 면과 시간상 제작환경상 등의 제약으로 인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부정적인 부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방송위원회 심의규정 및 방송사 모니터링제도, ombudsman 프로그램 운영, 방송사 자체의 시청자와의 의견교류를 위한 인터넷상의 프로그램별 홈페이지마련 및 운영 등의 노력과 각계의 모니터링 활동, 전문단체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매체속의 영양정보 습득 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활동 등은 언론매체속의 식품영양정보를 건전하게 하는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Willet (32)은 영양관련 연구결과를 기사나 프로그램으로 준비하는 언론인들에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지, 실제 인간생활에서 수행하는 연구인지, 실제 질병의 결과를 관찰하는 연구인지, 대규모 연구인지, 증거의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발표해 줄 것을 소개하였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련 식품영양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유형별로 분류, 분석하여 프로그램 장르별 적절한 면은 영양교육적 측면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장르별 부적절한 면은 모니터링 팀 등 전문가들의 이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Lee JW, Lee BK. Examination About The Television's Role Of Nutrition Education Through Content Analysis Of Nutrition-Related Program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3(4):642-654, 1998
2. Gorn GJ · Goldberg ME. Behaviorai Evidence Of The Effects Of Teievised Food Messages On Children, *J Consumer Res* 9:200-205, 1982
3. 김초일. 영양관련 보도의 현실. 한국영양학회 1998년도 춘계 학술대회 초록집, pp.14-16, 1998
4. 안경주. 국내 주요 일간지 환경기사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5. Kim HS. Television Food Advertisement : Review And Recommendation. *Korean J Dietary Culture* 11(4):527-538, 1996
6. Lee JW, Lee BK. Analyzing The Producer's Attitudes Toward Specialist's Advice And The Panelist Constitution Of Nutrition Related TV Program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3(2):317-328, 1998
7. 민영목. 방송모니터 길라잡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8. 박용주. 방송매체에 나타난 식품영양정보 언론매체에 비친 식품영양 정보 이대로 좋은가?. 대한영양사협회 심포지움 자료집, 1999
9. 김현숙. 방송매체에 나타난 식품영양정보 언론매체에 비친 식품영양 정보 이대로 좋은가?. 대한영양사협회 심포지움 자료집, 1999
10. 윤진숙. 올바른 영양정보 보급을 위한 대중매체: 전문가와 정부의 역할. 한국영양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pp.17-21, 1998
11. 공용배. 언론모니터링의 목표와 방향. 대한영양사협회 식품영양정보 언론 모니터링 요원 교육 자료집, 2002
12. 문현경 · 장영주. 방송매체에 나타난 식품영양관련 정보의 양적 질적 분석. 대한영양사협회 건강정보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매체 속의 식품영양정보 분석 심포지움 자료집, pp.35-67, 2003
13. 이지전 · 박종연 · 주미현. 방송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인지도 및 요구도. 제53차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연제집, p.385, 2001
14. 최은진. TV 방송을 통한 건강정보 보급의 현황과 정책 방향. 보건복지 포럼, pp.74-83, 1999
15. 한국소비자연맹. TV 화면 장면의 모니터링 결과. 한국소비자연맹. 2001
1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다이어트 식품의 허위 과장광고 모니터

- 링 결과 보고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01
17. 미디어세상 열린 사람들. 음식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음식, 맛, 맛집의 문제들 제66차 보고서. <http://www.mediayolsa.or.kr>, 2004
 18. 한국방송위원회 <http://www.kbc.go.kr>
 19. Bredbenner BC. American Television A Source Of Nutrition Education And Information. *J Community Nutrition* 5(4): 230-238, 2003
 20. IFIC. The Lastest Media Guide From IFIC Foundation: Don't Leave Your Office Without It. Food insight may/june, 2004
 21. IFIC. The Lastest Media Guide From IFIC Foundation: Don't Leave Your Office Without It. Food insight May/June, 2004
 22. IFIC. Research Conducted By The Center For Media And Public Affairs, Reporting Of Diet, Nutrition And Food Safety. Food and thought V, March, 2004
 23. 보건복지부. 식품영양정보 언론모니터링사업 종합보고서. 대한영양사협회, 1999, 2002, 2003
 24. Moon HK, Yong MJ, Jang YJ. Analysis Of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For Articles And Advertisements In The Daily Newspapers (Year 2002). *Korean J Diet Assoc* 10(2):143-158, 2004
 25. Kim HS, Ryu HS, Yang IS, Kim KT, Bae MY. The Monitoring Case Analysis Of Nutrition-Related Programs Presented On Television Broadcast Media. *Korean J Dietetic Assoc* 9(2):138-148, 2003
 26. Kim HS, Ryu HS, Yang IS. The Monitoring Of Information About Food And Nutrition Presented Throughout Various Television Broadcast Media. *Korean J Nutr* 36(5):508-514, 2003
 27. 이상욱 등. TV에서의 흡연 음주장면 등 건강관련 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2003
 28. 김은주. TV뉴스의 취재원 사용관행과 제시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9. 손승혜. 국내 방송뉴스 대안 제시없고 사건 결과만 보도. 한국방송진흥원 저널리즘 토론회, 1999
 30.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언론모니터 활동보고서, 1994, 1995, 1996.
 31. 손숙미. 인쇄매체에 나타난 식품영양정보. 대한영양사협회 식품영양정보 모니터링 심포지움, 1999
 32. Willet CW(손수미 역). 하버드 메디컬스쿨이 차려주는 웰빙푸드(원저: Eat, drink and be healthy). 동아일보사, pp.42-45, 2004